

# 불황 ... 국립대 몰리고 졸업 늦춘다

## 사립대 등록생들 환불 받아 학교 옮겨

## 학점 이수자 졸업 연기 신청 3배 늘어

경기 불황이 대학교 선택과 졸업 시기까지 좌우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학에 합격했으나 최종 등록은 전남지역 국립대를 선택한 학생들이 상당 수에 달한다. 특히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졸업 연기를 신청한 학생도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광주지역 대학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등록을 취소하고 전남지역 국립대학 등에 최종 등록·입학한 신입생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에 따른

가정 경제를 고려, 학비와 생활비가 적게 드는 전남지역 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돈이 들더라도 하숙이나 전세를 얻어 유학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에서 광주지역 대학으로 입학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최근 가계별 실질소득이 격감하면서 풍토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 사립대의 한 학기 당 등록금은 대학 별, 학과 별 차이는 있지만 대개 250만원~380만원(의과 계열 제외)에 달한다. 그러나 전남지역 국립대 학비는 160만원~260만원 수

준으로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여기에 전남지역에서 광주로 유학을 경우 주거·숙식 등의 생활비 추가 및 고물가를 감안하면, 전남지역 국립대를 선택할 경우 연간 600~1천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광주대의 경우 지난 달 등록생 중 160명이 환불을 받아 다른 학교로 옮겼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과나 사회 복지학과 등 이 대학 경쟁력 있는 학과를 지원했던 학생을 비롯한 절반 가량은 지방 국립대로 입학한 것으로 학교 측은 파악하고 있다.

순천대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광주지역 대학에 등록했다가 비싼 수업료와 물가 상승에 따른 유학비를 염려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왔다"면서 "이런 학생들은 가정 경제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에 대한 사고가 깊고,

성적도 우수해 학교 입장에서는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가 2006년부터 졸업생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졸업자 적정기준에 합격한 학생이 2학기까지 학교를 더 다닐 수 있도록 한 '졸업유보제'를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학기 보다 3배나 늘었다. 2008년에는 83명이 졸업유보를 신청했으나 올 2월에는 신청자가 246명으로 증가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시 졸업자 보다 졸업예정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졸업유보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학점이 낮은 과목을 재수강해 평균 학점을 높이거나 어학 및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23도

## 3월 중순 최고 기록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23.1도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3월 중순 기준)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안지역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다"고 17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서해에서 유입된 짙은 안개로 곳에 따라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연일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서해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상청은 20도를 웃도는 초여름날씨가 2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 해돋이 06시 39분  
☀️ 해질 18시 42분

🌙 달출몰 01시 10분  
🌙 달질 10시 42분

**구름 뒤에 숨은 태양**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

광주	흐림	12/21
목포	흐림	11/17
여수	흐림	11/16
완도	구름 많음	11/18
구례	흐림	9/20
해남	흐림	10/18
장흥	흐림	10/18
고흥	흐림	9/18
순천	흐림	10/18
영광	흐림	12/19
진도	흐림	11/18
전주	흐림	12/20
남원	흐림	9/21
옥산도	흐림	9/15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목포 06:44	11:47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5m	18:18	23:4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여수 01:00	06:52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12:23	18:53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0	9/20	8/16	8/16	6/16	5/15

## ■ 진실위 '강진 형제 간첩' 재심 권고

### “억울하게 돌아가신 형님들 34년만에 명예회복 기뻐요”

김문영씨 회한의 눈물



가한 재일교포 사업가로 58세 때인 1975년 2월 고향인 강진을 찾았다가 지인의 거짓

“이제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형님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 출신인 김문영(69·사진·경기도 고양시)씨는 고향에서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망한 형들의 누명을 34년 만에 벗겨줬다는 소식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1975년 경찰의 고문과 협박에 의해 두 형제가 간첩으로 몰린 뒤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30여년을 ‘간첩 가족’이란 오명을 쓰고 살아왔다”며 “형님들은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가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7일 ‘김우철·이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사건’ 등 2건의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국가에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권고했다.

김우철씨는 일본에서 자수성

신고로 인해 간첩으로 몰렸다. 동생 이철(당시 51세)씨와 함께 경찰에 불법연행된 뒤 모진 고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고, 결국 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경찰은 김씨 형제를 무자비하게 고문함은 물론 이들의 친인척도 10여일간 구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형제는 법원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철씨는 징역 10년, 이철씨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하지만 이철 형제는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각각 1992년과 2002년 사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천변 일대 방역

광주시가 해방기를 맞아 공동 방역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17일 동구 방역단 직원들이 광주시 동구 호남동 광주천변 일대에서 방역 차량을 동원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 ‘장자연 문건’ 필체 장씨 것과 동일

## 경찰, 거론된 유력 인사들 곧 소환조사

탈러트 장자연(30) 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은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장자연 문건’의 필체가 장씨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 의뢰한 문건이 사본이기 때문에 글씨를 눌러서

때 종이에 가해진 압력 정도까지 비로 분석하지 못했지만 장씨 집에서 확보한 장씨 다이어리와 의뢰한 문건의 필체는 거의 동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의뢰된 문건이 원본이 아니어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원본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

미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경찰은 유족들이 소각한 문건의 재를 수거해 인주 성분 등이 있는지에 대해 감식을 의뢰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건을 장씨가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판명됨에 따라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를 위해 문건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을 금명간 소환할 계획이다. /연행스

#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 무당”

## 광주 대한통운 택배기사 70여명 강력 반발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기사 70여명은 17일 오전 광주시 남구 송하동 대한통운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가 전일 오후 택배기사 73명 전원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배달 수수료 인상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당일 사측은 ‘오후 6시 이전까지 복귀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유지 협의가 가능하나 미 복귀자는 자동 계약 해지됨을 최종 통보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회사로 들어가려는 택배기사들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들은 특히 “계약서에 실린 적인 근무 여건 등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와 같다. 계약해지도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 “사측의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16일부터 작업장을 임의로 이탈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택배기사와 회사 간 계약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로 계약서 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택배기사와 회사 간 계약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로 계약서 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택배기사와 회사 간 계약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로 계약서 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택배기사와 회사 간 계약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로 계약서 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월 1회 건강프로그램

### 광주 남구보건소

광주시 남구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매일 한 차례씩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당신의 건강에 파란불...’이라는 주제로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건강프로그램은 매일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2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론 교육에서는 광주시 공보의 신현종 내과전문의와 관련 전문강사가 참여해 질환의 원인과 합병증, 혈압·혈당 측정법, 약물요법, 영양교육 등을 소개한다.

또, 운동이 가능한 주민을 대상으로 2.1km 제석산 산행을 진행하고, 개인이 설정한 운동량을 만보기로 확인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질환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

38년전통·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E TOUR.com

☎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

광주서구점 062-383-1133	광주충민점 062-974-3050
순천점 061-755-7114	목포점 061-244-5882
익산점 063-843-3800	전주롯데점 063-289-2855
군산점 063-464-5500	전주시청점 063-282-3210

EVENT 1

## 가족사랑 & 나눔 Event

가정사랑 & 나눔 Event

가정사랑 & 나눔 Event

EVENT 2

## 1000만원 행복

1000만원 행복

1000만원 행복

### 무한출발 롯데관광 38주년 & 광주지사 OPEN 2주년 기념 고객감사 특별전

북경	장가계 & 황산
<p>북경, 만리장성 4일 ₩529,000부터 ₩399,000부터 ▶4/7, 14, 21, 28</p> <p>Big Hit 북경, 만리장성 4일 ₩399,000부터 ▶4/7, 14, 21, 28</p> <p>NO 혼잡시절특별북경, 만리장성 4일 ₩499,000부터 ▶4/7, 14, 21, 28</p> <p>NO 혼잡시절특별북경, 만리장성 5일 ₩529,000부터 ▶4/7, 14, 21, 28, 5/1</p>	<p>상해, 항주, 황산 5일 ₩699,000부터 ▶4/2, 5, 6, 9, 12, 13, 16, 19, 23, 26, 27</p> <p>상해, 장가계(황가계) 4일 ₩749,000부터 ▶4/2, 5, 6, 9, 12, 13, 16, 19, 23, 26, 27</p> <p>상해, 장가계(황가계), 소주 5일 ₩799,000부터 ▶4/2, 5, 6, 9, 12, 13, 16, 19, 23, 26, 27</p> <p>상해, 황산, 삼형산 5일 ₩759,000부터 ▶4/2, 5, 6, 9, 12, 13, 16, 19, 23, 26, 27</p>

2009 Spring

## Honeymoon

2009 Spring Honeymoon

2009 Spring Honeymoon

2009 Spring Honeymoon

동남아 인기여행	일본 여행	제주도 여행
<p>파타야 방콕 5일 ₩499,000부터</p> <p>캄보디아, 앙코르와트 5일 ₩499,000부터</p> <p>푸켓 특급리조트 5일 ₩749,000부터</p> <p>방콕+마카오 3일 ₩649,000부터</p>	<p>북해도 항산여행 4일 ₩899,000부터</p> <p>일본본 핵심여행 5일 ₩1,390,000부터</p> <p>제주 특급여행 10일 ₩2,390,000부터</p> <p>동유럽 9일 ₩2,690,000부터</p>	<p>제주도 패키지 2박3일 ₩229,000부터</p> <p>제주도 자유여행 2박3일 ₩259,000부터</p> <p>제주도 물리여행 2박3일 ₩219,000부터</p> <p>제주도 올레여행 1박2일 ₩266,000부터</p> <p>제주도 올레여행 1박2일 ₩167,000부터</p>